

2018년 1월 13호

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트



윤태영,
<윤태영의 글쓰기 노트> (2014) 中



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

[28] 한 문장, 또는 한 줄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자

3) 몇 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초의 내용들은 거의 모두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.

3) 몇 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초의 내용들은 거의 모두 바뀌었다.

한 문장, 한 줄에서 같은 단어를 불가피하게
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.

최대한 쓰지 않도록 노력하자.

정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유사한 단어를 쓰자 

[29] 일기가 아니어도 좋다 '1일1문'의 원칙을 갖자

글쓰기 선배들은 일기를 강조한다. 일기가 글 잘 쓰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.

하루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기억해 묘사하는 것도 있다.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곱아떨어진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몇 줄로 묘사해 보자. 얼굴 생김새, 차림, 잠든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.

반복해서 노력하고 치열하게
훈련하면 성과가 있는 분야가 글쓰기이다 

[30] 영문법 세대, 영어식 구문에서 탈출하자

세종대왕은 내가 **최고로 존경하는 위인 중의 한 분**이다.

세종대왕은 내가 **가장 존경하는 분**이다.

주어가 꼭 들어가는 영어식 구문이나
이중부정 자주 등장하는 일본식 구문의
흔적은 **가능하면 최소화하자**_____



[31] 화장을 짙게 하지 말자 수식은 짧은 게 좋다

한번 회의를 하면 짧게는 3시간, 길게는 6시간 정도 걸리는 콘텐츠 생산 및 문안 작성 회의가 계속되었다.

회의가 계속 되었다. 짧게는 3시간, 길게는 6시간 걸리는 회의였다. 회의에서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문안을 작성했다.

콘텐츠 생산 및 문안 작성 회의는 한번 열리면 짧게는 3시간, 길게는 6시간 정도 걸렸다. 이런 회의가 계속되었다.

수식어가 길게 늘어지면 좋지 않다.

어떤 것은 관형어로 놓아 두고,

어떤 것은 서술어로 전환시켜야 한다. 

[32] 긴 문장, 글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필요가 있다

독자에게 긴장감을 주어야 하는 글은 단문으로 가는 게 좋다.
상대적으로 차분함과 진지함을 유지해야 한다면
호흡이 긴 문장을 적절하게 섞는다.
긴장감을 주어야 할 문장이 과도하게 늘어지면
독자는 읽다가 맥이 빠질 것이다.
반대로 차분해야 할 글을 짧은 호흡으로만 이어가도 문제다.

짧은 호흡의 문장이 연속되는 글과,
긴 호흡의 문장이 섞인 글은 분위기가 다르다.
결국 글의 내용에 따라 조절을 하는 게 좋다. 

[33]

초고와 완성본은
완전히 다른 작품일 수도 있다

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하다 보면
어느 사이엔가 **처음의 초고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탄생한다.**
자신이 작성한 최초의 글이 없어진다 해도
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은 아니다.
그 글은 그 글대로 나름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.

**초고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,
대안을 제시하도록 도와준다.
초고가 없으면 완성본도
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다**

